

-(으)ㄴ 마당에

~할 마당에 — 이렇게 된 판에

절박한 상황을 내세워 어떤 일을 생각할 수도 없는 것으로 일축합니다. 마당은 원래 뜰을 뜻하며, 비유적으로 지금 처해 있는 형편을 가리킵니다.

■ 결합 방법

상황	형태	예
모음으로 끝남	-ㄴ 마당에	망하다 → 망할 마당에
자음으로 끝남	-을 마당에	먹다 → 먹을 마당에
완료된 상황	-(으)ㄴ 마당에	헤어진 마당에
ㄴ로 끝남	아무것도 붙이지 않음	만들다 → 만들 마당에
뒤 절	일축, 흔히 의문문	... 무슨 소용이에요?
상황의 조건	심각함	평범한 상황에는 맞지 않음

■ 언제 쓰나요

결합은 기본 규칙을 따르며 ㄴ 어간은 짧은 형태가 됩니다. 만들다는 만들 마당에가 됩니다. 완료 형태인 -(으)ㄴ 마당에도 똑같이 자주 씁니다. 마당은 띄어 씁니다.

여기서 말하는 상황은 심각하거나 절박한 것입니다. 사업이 망해 가거나, 마감이 무너지거나, 관계가 끝나는 경우입니다. 평범한 상황에는 쓰지 않습니다.

뒤 절은 어떤 일을 말도 안 된다고 일축하며, 수사 의문문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: 회사가 망할 마당에 승진이 무슨 소용이에요?

어조는 강하고 감정적입니다. 중립적인 보고서보다는 구어나 극적인 글에 어울립니다.

■ 예문

- 1 회사가 망할 마당에 승진이 무슨 소용이에요?
- 2 이미 헤어진 마당에 이유를 따져서 뭐 하겠어요.
- 3 마감이 내일인 마당에 새로 시작할 수는 없다.
- 4 당장 먹을 것도 없는 마당에 여행이라니요.
- 5 다시 만들 마당에 굳이 고칠 필요가 있을까요?
- 6 이렇게 된 마당에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.

■ 비교

-(으)ㄴ/는 이상
이상은 이미 정해진 사실을 받아 의무를 말하고, 마당에는 위기를 받아 선택지를 배제합니다. 하나는 다짐하고, 다른 하나는 배제합니다.
시작한 이상 끝내야 한다. (끝내야 한다) / 망할 마당에 무슨 소용인가. (무슨 소용이 있겠는가)

-(으)ㄴ 지경이다
지경이라는 극단적인 상태 자체를 나타내고, 마당에는 그 상태를 전제로 다른 것을 일축합니다.
쓰러질 지경이에요. (곧 쓰러질 것 같다) / 쓰러질 마당에 일이라니요. (이 상태에 일이라니?)

-는데
-는데는 배경을 중립적으로 제시하고, 마당에는 거기에 절박함을 실어 대개 수사 의문문으로 이어집니다.
바쁘는데 어떻게 가요? (바빠서) / 망할 마당에 어떻게 가요? (모든 게 무너지는 판에)

■ 주의

- ✗ 날씨가 좋을 마당에 산책을 갔어요.
- 날씨가 좋아서 산책을 갔어요.
마당에는 심각하거나 절박한 상황이 필요합니다. 평범한 상황에는 일반적인 이유 어미를 쓰십시오.
- ✗ 다시 만들들 마당에 고칠 필요가 있을까요?
- 다시 만들 마당에 고칠 필요가 있을까요?
ㄴ로 끝나는 어간은 만들 거예요, 만들 지경이다처럼 이미 ㄴ을 갖추고 있습니다.
- ✗ 회사가 망할 마당에 승진했어요.
- 회사가 망할 마당에 승진이 무슨 소용이에요?
뒤 절은 무언가를 소용없다고 일축해야 합니다. 단순한 사실 서술로 끝나면 구문이 완결되지 않습니다.